

하인두암의 재건에 있어 요골전완유리피판의 유용성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한동혁, 임영한, 김승태, 노영수, 김진환, 안회영

하인두암은 대부분 수술적 절제 후 기도흡인이나 연하장애 등의 기능적 손상 없이 연하운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재건술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하인두나 경부 식도의 재건에는 유리공장피판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골전완유리피판과 외측 대퇴부 피판의 경우 부분적 결손과 환상결손 모두에서 패취의 형태나 등글게 말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흉부식도 상부까지의 결손의 경우에는 위간치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건술이다.

이중에서 요골전완유리피판은 얇고 유연하며 피판을 등글게 말아서 관상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설기저부에서 상흉골절흔까지의 충분한 길이의 재건이 가능하고 복부를 개방할 필요가 없으며 혈관경이 굵고 길며 공장보다는 허혈에 오래 견디고, 수술 후 음성 재활의 결과가 좋은 장점이 있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하인두암으로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재건술로 요골전완유리피판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골전완유리피판의 형태와 피판의 생존률, 공여부위와 이식부위의 합병증, 피판술 이후의 연하기능과 조음기능을 평가하였다.